

광주시 코로나19 교사 확진자 발생



23일 오후 광주 남구 진월초등학교가 출입이 통제돼 있다.

남구 진월초등학교 긴급 방역·출입 통제

내달 6일까지 휴업명령...접촉 교사 자가격리

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초등학교의 출입이 통제됐다.

23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126번 확진자 A씨(30)의 아내인 B씨(31)가 이날 오전 6시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B씨는 광주 진월초등학교 교사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긴급방역을 하는 한편 학교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B씨는 대구에 가지 않았지만 두통 등의 증상을 보여 남편 A씨와 함께 조선대병원에 격리돼 검사를 받아왔다.

A씨는 지난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두통 증상을 보여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와 함께 대구에 다녀온 교인 중

3명도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시교육청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다음달 6일까지 진월초등학교에 대한 휴업명령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A씨의 증상이 발현된 19일 이전인 지난 17일과 18일 만난 교사 등에게도 자물 격리를 통보하고 추가 접촉 교사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보건당국은 지난 19일 A씨와 접촉한 교사 13명 등 총 21명에 대해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학교 측은 방역작업 등을 위해 학교 출입을 통제한 상태다.

강아라 기자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후 광주 한 대형서점에서 3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져 시민들이 우려스럽게 쳐다보고 있다.

‘코로나 검사’ 직전 도주

광주 들쭉셨던 20대 ‘음성’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조사...해당 서점 영업 재개

광주 한 대형서점에서 갑자기 쓰러진 뒤 ‘신천지교회’ 등을 언급한 20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

23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광주의 한 대형서점에서 쓰러진 A씨(24)가 감염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22일 오후 4시쯤 서점에서 쓰러졌고, 119에 의해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 거주한다’, ‘깜짝깜짝 쓰러지는 병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에 예배를 드리기를 위해 왔다는 A씨는 대구 신천지교회를 다녀왔고, 중국 사람들과도 자주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발열이나 인후통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점 측은 A씨가 쓰러지자 서점 안에 있는 고객들을 내보낸 뒤 임시휴점에 들어갔고, 보

건당국은 코로나19 가능성 등에 대비해 긴급 방역작업을 벌였다.

A씨는 병원에서 감염검사를 진행하던 중인 오후 7시50분도 주했다. 휴대전화도 끄고 잠적한 A씨는 오후 8시45분쯤 스스로 다시 병원에 돌아왔다.

A씨가 감염 조사결과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가족들이 A씨를 데리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천지 측도 A씨 보도가 나오자 신도가 아니라고 보건당국 등에 밝혔다.

A씨가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전날 도주한 것 등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공무집행방해나 경범죄처벌법 등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임시 휴점하고 방역을 진행한 해당 서점도 영업을 재개했다.

강아라 기자

‘코로나19’로 83년만에 미사 전면 취소한 광주 성당



23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한 성당에 다음달 5일까지 미사가 열리지 않는다는 공지가 붙어 있다.

23일 오전 9시를 넘긴 광주 서구 풍암동성당 앞은 조용했다. 평소 일요일 이 시간이면 10시부터 시작하는 교중미사에 참석

하기 위해 신자들이 줄지어 들어서는 시간. 하지만 이날은 행여 미사 취소를 모르고 찾아오는 신자들을 안

내하기 위한 성당의 직원 한명만 입구에 서 있었다. 이 직원은 “어제 모든 신자들에게 안내문자가 전달됐고 언론을 통해 미사나 모임 등을 취소한다는 보도가 나갔기 때문인지 아직까지 성당을 찾아오신 분들은 없다”고 말했다.

전날 천주교광주대교구(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3월 5일까지 미사를 포함한 모든 모임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천주교광주대교구 모든 본당에서 미사가 전면 중단된 것은 1937년 광주대교구가 생긴 이래 83년만에 처음이다.

비슷한 시각, 광산구 비아동성당 본당 입구에도 ‘오늘부터 3월 5일까지 미사가 없다’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었다. 몇몇 관계자들이 사무실 보수 작업 등을 하는 모습만 보일 뿐 일반 신자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 성당 관계자는 “미사가 열리지 않는 일은 처음인 것 같다”면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급속도로 퍼진 것을 보면 교구에서 옳은 결정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6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온 탓인지 성당 주변도 평소와는 다른 일요일 풍경이었다.

풍암동 중심인 신암근린공원 일대는 인적을 찾아보기 드물었고, 상가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풍암1로의 가게 대부분은 문이 닫혔다.

영업준비를 하던 한 패스트푸드점 상인은 “어제부터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다는 것이 느껴진다”며 “매출 역시 급감했다”고 전했다.

최이슬 기자

코로나19 환자 3명 에크모 등 기계호흡...4명 산소마스크 착용

3명 중 1명 청도대남병원서 확진...산소마스크 하루새 2명 줄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인공심폐기인 에크모(ECMO) 등을 사용해 기계호흡을 하는 확진환자가 3명이라고 23일 밝혔다.

기계호흡을 하는 확진환자 3명 중 1명은 청도대남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비교적 중증 상태로 산소마스크를 사용하는 환자는 4명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오송 질병관리본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에크모 또는 기계호흡을 하는 확진환자 수는

3명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산소치료를 하는 확진환자는 4명”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이 착용하는 에크모(ECMO)는 인공심폐기다. 에크모는 폐 기능이 호전될 때까지 생체신호를 유지해주는 의료

기이다. 환자 몸 밖에서 심장과 폐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코로나19 환자들의 호흡을 돕는 인공호흡기는 폐질환 이상이나 마취를 시켜 수술할 때 인공적으로 호흡을 조절해 폐포에 산소를 불어넣는 의료장비다.

정은경 본부장은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에크모 1명, 인공호흡기 1명 등 확진환자 2명의 상태가 위중한다고 밝힌바 있다. 산소마스크를 착용한 환자는 전날에는 6명이었지만, 이날에는 4명으로 2명 줄었다.

광주 우치공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임시폐쇄

광주 우치공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방문 사실에 폐쇄를 결정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3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126번째 코로나19 확진환자(30)가 지인과 함께 지난 20일 오후 5시30분쯤 우치공원과 동물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우치공원은 이 시장 발표 이후 A씨 방문 사실을 접했다. 공원 측은 낮 12시쯤 시와 협의해 임시폐쇄를 결정하고 오후 1시까지 방문객 30여명을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우치공원 측은 이날 공원 전역을 방역한다.

N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